

---

# 2022년 제5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2. 1. 28. ~ 2. 3.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2. 1. 28.	시청률	0.048

### 【총 평】

세계 코로나19 관련, 오미크론 감염자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점을 찍고 상승세가 꺾이고 하강하는 듯하다. 특히 중국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경기장에는 특정인들 외에 일반관객은 입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이슈’의 지난해 경제성장을 4% 달성 기조 지속 방안’에서는 한국경제가 지난해 4.0% 성장한 배경부터 성장 기조를 이어받아 올해 경제성장을 이을 방안까지 살펴보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것으로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설비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소비 회복, 정부의 적극적 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연간 경제성장을 4.0%를 순조롭게 달성했다. ‘알뜰신잡’에서는 ‘내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소개했다. 흩어진 금융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는 서비스로 금융권과 통신, 공공전자상거래 내역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 【구성 및 내용】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WHO는 “숫자는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전 등록하지 않은 관람객을 제한하고 선수의 동선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최다치를 기록하는 가운데에서도 방역의 단계를 조정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프랑스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고,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은 ‘위드코로나’를 재시동 중이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이슈로는 초기 대응을 잘했고 3차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오미크론의 국내 전파 속도가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고 전했다. 정부는 설 연휴를 두고 오미크론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인위생과 함께 이동자제를 당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왔다. 특히 경제성장률은 4.0%로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정부의 추경과 재정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민간 차원의 스스로 자립하는 소비와 투자를 통해서 경기 흐름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 견인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된 국가는 미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난해 12월 25일 IMF가 세계 경제성장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4.9%에서 4.4%로 하향했다. 미국은 많이 떨어지고, 중국도 많이 떨어졌다. G2국가가 부실하다는 것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나쁘게 보는 이유는 오미크론의 확산, 공급망 교란,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 때문이다.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3%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는 내년까지 빠른 성장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1년에 이미 성장한 것에 추가로 3% 성장을 예상하는 것이므로 그 성장률이 크다. 경상수지, 소비 호조, 추경 효과 등을 포함한 전망치이다.

프로그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방송일자	2022. 1. 28.	시청률	0.024

### 【총 평】

최근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실태와 대응, 소상공인 방역 지원 추경 예산안, 정례브리핑 생중계 등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게 다룬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중대본을 전화연결해 달라지는 신속 항원검사 등 대응 방안과 확진자 추세, 설연휴 이동 자제 당부 등을 신속하게 알아본 내용이 주목도를 높였다. 또 건강생활 정보를 종합한 설 연휴 응급실 운영, 금연캠프 등이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고 '모바일 신분증 시대'는 발급 과정과 기대 효과 등을 통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이 밖에 인사혁신처 올해 업무계획에서는 적극행정,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기대감을 갖게 했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으로 마무리가 이어져 현장성, 즉시성, 주요 정책 전달력 등을 살렸다.

### 【구성 및 내용】

오미크론 확산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설 연휴 전국 501개 응급실 24시간 운영 등을 시청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다룬 구성이 돋보였다. 1월 29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2월 2일까지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선택해 검사, 2월 3일부터 동네병원 진단검사와 치료 참여, 2월 3일부터 60세 이상만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설 연휴 이동 자제를 당부하는 정부 요청에 동참하기 위해 귀성 계획을 취소하고 오미크론 대응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정은 시청자들로부터 공감대로 형성했다. 특히 오미크론의 대응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병상확보와 자가진단키트의 원활한 보급 및 비용을 낮추는 방안 등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험운영 개통식을 열고 발급 사용을 시연했다. 간편한 신분인증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으며, 6월 말까지 시험 발급하며,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22', 금연캠프에 참여하면 무료로 건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는 4박 5일 금연캠프 소식 등을 소개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는 밀접접촉 기준을 설명했는데 둘 중 한명이라도 마스크를 착용 안했을 때 확진자와 2m 이내,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등이다. FDA 등록 제품은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고, FDA 승인 제품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이다. 회사, 화장품, 의료용 식품, 분유, 건강 보조제는 FDA 승인 대상이 아니다. 지난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 시행에 따라 1월 28일부터 택시합승을 합법화했는데 앱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에 한해 허용했다. 이밖에 정부의 14조원 규모의 추경 요청에 대해 예산이 어떤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구성이 이해도를 높였다. 2022년 인사혁신처 주요 업무계획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면책하고 우대하는 제도를 명문화 한다는 등의 정부 정책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2. 1. 28.	시청률	0.016

## 【총 평】

설 명절을 맞아 '설 인심에 구경거리 풍성한 전통시장'의 이모저모를 담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 경기를 되살리는 자구노력을 부각했다. 또 추운 겨울을 녹이는 명소와 훈훈한 나눔 현장을 다룬 기획이 돋보였다. '돔배기 영천시장 북적'은 각종 제수용품과 우시장 소머리국밥이 추억을 소환했고 서울시의 '설맞이 전통 시장 할인행사'는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려는 상인과 지자체의 노력을 잘 표현했다. 추운 겨울을 녹이는 명소와 나눔 현장으로 거제시의 '겨울 진객, 대구 풍어 소식'과 목포시의 고하도 겨울 여행 인기 등을 소개했다. 겨울옷과 학용품을 모아 일곱 남매 가정과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는 훈훈한 미담도 겨울 추위를 녹이기에 족했다.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은 위반 현장을 고발하고 보험료 할증 등 제재가 강화된 점을 알려 캠페인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안전불감증 위반사례를 영상으로 현장 고발한 국민기자의 열정이 느껴졌다.

## 【구성 및 내용】

- 설 인심에 구경거리 풍성한 '영천공설시장' 나들이  
영남권 3대 시장 중 하나로 불리는 영천공설시장이 설을 앞두고 장날을 맞아 많은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그 중 돔배기라고 불리는 상어고기는 제사상에 오르는 귀한 고기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더불어 소머리국밥은 영천시장의 명물이다.
- "설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최대 30% 할인 행사  
서울의 도곡시장은 설 명절이 다가오며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에 소재한 159개의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의 경우 최대 3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다. 또, 시장마다 차별화하여 진행되는데 일정 금액 이상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하기도 한다.
- 우회전 뒤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시 보험료 '깡충'  
우회전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보행자 위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횡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는 1호 위반시 5%가 할증된다.
- '게임 섷다운제' 폐지, 청소년 자율 선택 고민  
게임 섷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12시가 넘으면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된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되며 대신 학부모가 청소년과 함께 자율적으로 이용시간을 선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이웃과 나누며 살아요, 파주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파주지역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 '아름다운 세상만들기'는 20년 넘게 정기적으로 힘겨운 이웃과 독거노인 등에게 김장, 집수리, 연탄나르기, 여행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전개해왔다. 5천명의 회원과 연간 5백명 이상이 봉사에 참여 하고 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1. 29.	시청률	0.061

### 【총 평】

“조용히 소란하게 웃으며 삽니다.”에서는 숲속 캠핑장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즐기는 캠핑지기 주인공의 일상을 소개했는데, 캠핑지기와 캠퍼들의 행복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주인공에게 시골 생활의 기쁨을 알려준 사람은 자신보다 먼저 고향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영향이다. 캠핑장에서 동물들을 살뜰히 보살피며 시골 생활의 여유를 마음껏 즐기는 부친을 보며 시골 생활의 장점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특히 캠핑장 지기로의 주인공과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는 아들로의 모습 그리고 유튜브로 활동하는 주인공의 모습 등 매 순간 재미와 궁금증이 넘쳐나는 주인공의 일상을 잘 담아냈다.

### 【구성 및 내용】

원하는 대로 시골도 도시도 다 누리며 살고 있는 주인공은 도시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누가 정해놓은 시간표가 아닌 내 속도대로 흘러가는 시간’과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아버지의 고향 논산으로 귀촌을 한 지 10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형님이 지어놓은 펜션을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캠핑장 운영을 시작했다.

오래전에 부모님을 따라 찾아온 꼬마 손님이 이제 제법 성장해 혼자서 시간을 즐기고 자신과도 속 이야기를 터놓을 정도로 자란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신기해하고 있다. 주인공의 소원은 캠핑장을 찾아오며 어린 시절을 보낸 친구들에게 이곳이 시골 외갓집처럼 좋은 곳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그런 추억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북적이던 주말이 지나고 조용한 평일이 되면 캠핑장 곳곳을 살뜰히 돌보고 새로운 주말을 맞아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장박 캠퍼들은 각자의 텐트를 쳐두어서 그걸 잘 잘 관리하고 각 텐트 주인들의 살림살이도 돌본다. 김칫독을 귀엽게 땅에 묻어 둔 캠퍼도 있다. 주말이 되면 텐트 주인들이 식구들과 함께 캠프장에 와서 갑자기 큰 축제 장소로 변한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야생동물도 구경하고. 거기에 맞게 캠핑장 지기는 붕어빵을 구워내어 대접한다. 캠핑장의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 혼자 남아 인적 없는 이곳을 돌봐야 한다. 반려견 미루도 있고, 닭도 있고, 사슴도 있고, 나무, 산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굳이 외로움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조용한 것도 좋고, 시끄러운 곳이 그리우면 그런 장소를 찾아가면 된다.

주인공은 최근 개인 미디어 방송에 영상을 올리고 있다. 한가한 평일을 이용해서 캠핑장의 소식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영상을 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늘어나고, 영상 덕분에 찾아오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자 어느새 새로운 사업이 되었다. 유튜브를 통해서 캠핑하는 요령 등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성실하게 살아온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서 캠핑장을 운영하니까 10년 전에 이곳에서 캠핑을 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다시 찾아오고 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1. 30.	시청률	0.029

### 【총 평】

설특집 1부, '한반도의 설 명절, 남북의 귀성길과 차례상 문화 차이는'에서는 남북의 남녀 시니어와 MZ세대 대표 4명의 토크를 통해 설명절 문화의 동질감을 서로 인식하면서 한반도 한민족으로서 관계 회복을 일깨운 기획이 탁월했다. 남북출신 출연자들은 귀성길, 차례상 문화토크에서 명절선물, 세배문화, 차례상 사고팔기, 차례상에 피자치킨, 흥동백서 진설법에 이르기까지 방담을 나누며 남북 간의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시켜 민족 동질감을 부각시킨 점이 유의미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남북의 설날 문화를 깊이있게 살펴본 시의성있는 소재가 수용자의 니즈를 살렸고, 이산가족의 관심은 물론 MZ세대의 인식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 【구성 및 내용】

1970년대는 귀성길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서울역이 인산인해가 되고 압사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1980년대는 고속도로가 활성화가 시작되고 마이카 시대가 도래 하면서 귀성길 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가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설 연휴 고향이 아니라 여행을 위해 공항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고향 방문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짧은 연휴에 귀성길이 어렵기도 하다. 또한 북한은 대부분 씨족끼리 한 동네에 모여 살다 보니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개념의 이동은 흔하지 않다.

명절에 차례대신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 MZ세대에 대한 출연자의 의견은 세대와 관계없이 나뉜다. 요즘세대들은 명절의 연휴를 활용해서 여행을 즐기고 부모님은 다른 날을 이용해 찾아뵙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의견과 명절에 차례는 꼭 지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진다. 북한의 차례상에도 흥동백서, 동두서미, '치'자 들어가는 생선은 차례상에 놓지 않는다는 차례상의 예법은 남한과 비슷하다. 그러나 출연자들은 차례상을 직접차려야 한다는 의견과 만들어진 음식을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남한은 차례음식을 주문해서 차례를 지내는 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그런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북한은 어린이들이 동네 여러 집을 다니며 세배를 하고 세배돈을 받는 것이 문화이지만, 남한은 이웃 간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 그런 점에서도 문화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이나 새로운 음식을 상에 올리는 의견에는 세대 간, 남북 간 차이 없이 환영했다.

하루 빨리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명절 때만이라도 남북의 이산가족이 만나고, 택배로 선물도 주고받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한반도의 설 명절, 남북의 귀성길과 차례상 문화 차이에서는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비교적 예전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남북의 명절 문화를 알아볼 수 있었다. 남북을 떠나 세대를 떠나 개인의 의견 차이를 보면서 남북의 명절 문화에는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2. 1. 30.	시청률	0.029

## 【총 평】

‘한국판 뉴딜 - 실감형 콘텐츠와 수소 에너지’는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을 실감형 콘텐츠와 수소에너지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손쉽게도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시도한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첨단기술로 박물관에서 문화유산을 손과 눈으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설득력을 높였다. 또한 수소 시범도시인 평택을 사례로 들어 수소에너지의 의미, 필요성, 기대 효과 등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운 내용이 주목도를 제고했다. 이 밖에 한국판 뉴딜을 설명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 체험 영상관, 수소시범도시로 변모된 평택시의 달라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현장 탐방한 구성이 소구력을 높였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기대효과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구성 및 내용】

문화유산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만나 엄숙하고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변신하고 있다. 국립중앙 박물관 1층에 마련된 디지털 실감 영상관에서 고구려 고분 벽화를 체험할 수 있다. 대부분 중국이나 북한 지역에 있어 실제로 볼 수 없었던 고구려 벽화 무덤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옮겨 놓았다. 실감콘텐츠는 첨단 기술을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에 적용한 미래형 콘텐츠를 말하는데 정부의 3대 콘텐츠 사업 전략을 통해 지원하고 육성한다. 디지털 기술의 핵심적 가치는 갈수 없는 장소, 시간, 공간을 연결 서로를 연결시켜준다는 장점이다. 문화유산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기술을 통해 되살아나 과거의 시간과 공간에 관람객을 연결시켜주는 방향성으로 디지털 박물관이 출발했다. 국립청주 박물관에는 4D 시네마를 통해 철의 역사와 금속 공예품 등 체험이 가능한 디지털 복합 체험 공간인 무심관이 있다.

정부는 세계 최초 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시대로의 발판을 마련했다. 수소는 배기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서 얻을 수 있고 화석연료 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수소 경제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2017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H2KOREA가 출범했다. H2KOREA는 국내 유일의 수소관련 민관협의체로 수소경제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는 나무와 숲의 비율이 전국 최하위이자 미세먼지가 경기도 최고 수준이었는데 살기 좋은 도시로 변신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에너지 전환사업으로 평택항 일대를 수소 복합지구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이다.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로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수소경제의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